

요약

개인 불안이 사회·시대의 불안으로 신뢰증진·공동체 활성화로 해소해야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의 슬픈 자화상 ‘안녕들..’ 열풍·세월호 참사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이 달린 대자보를 붙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는 ‘안녕들 하십니까?’와 비슷한 대자보가 올라왔다. 여러 미디어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을 주요 이슈로 보도하였다.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해 배 안에 있던 304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그 뒤 구조작업에 나섰던 잠수부와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들이 모두 11명이나 숨졌다. 이 참담한 사건을 겪고 이 사회의 위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이 대참사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으며, 사후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부정부패,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행태, 정부의 책임회피 등으로 기업과 정부는 신뢰를 잃게 되었다.

개개인의 불안에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사건들의 반향이 시대적 불안으로 전이되었다.

시민들 “우리사회는 안전하지 못해..서울도 마찬가지” 부정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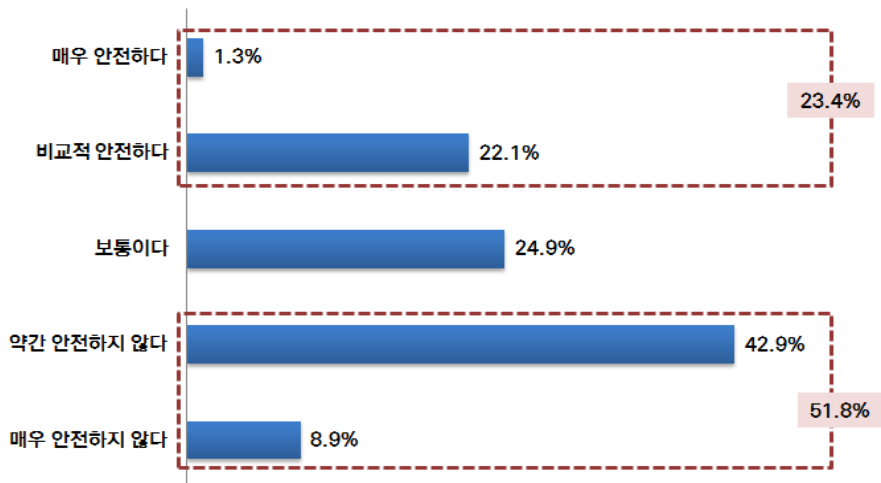
시민들은 대체로 우리사회가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대도시인 서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전세가격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다. 향후 노후불안이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경제생활의 불안정에서 오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에서 특히 더 잘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민 51.8% “서울은 안전하지 않아”...23.4%만 “안전한 편”

서울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42.9%가 ‘약간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도 8.9%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인 51.8%의 응답자가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우리나라 전체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서울에 대해서도 안전한 도시보다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역시 남성(48.5%) 보다는 여성(54.9%)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55.8%)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55.9%)과 주부층(5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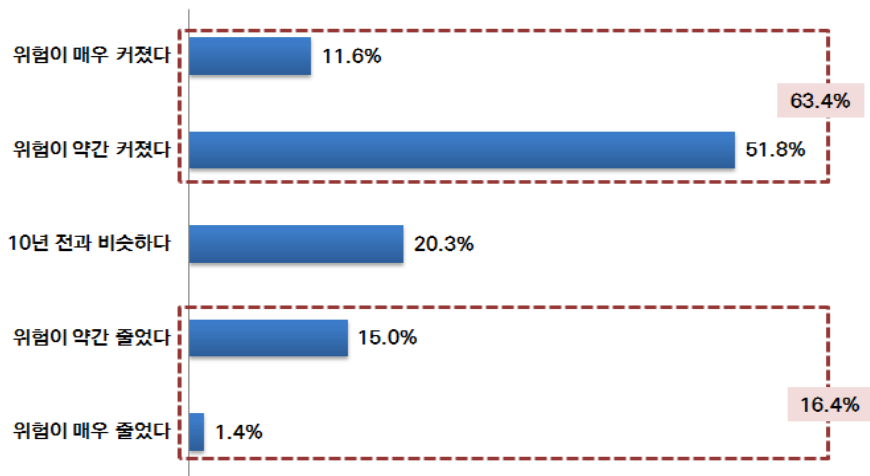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근로자(62.2%)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서울의 안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의 안전정도 인식

서울시민 10명 중 6명 “서울이 10년 전에 비해 더 위험해져”

10년 전과 비교할 때 서울시민이 경험하는 위험의 정도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51.8%)의 응답자가 ‘위험이 약간 커졌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11.6%는 ‘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 정도의 시민(63.4%)들은 10년 전에 비해 서울이 더 위험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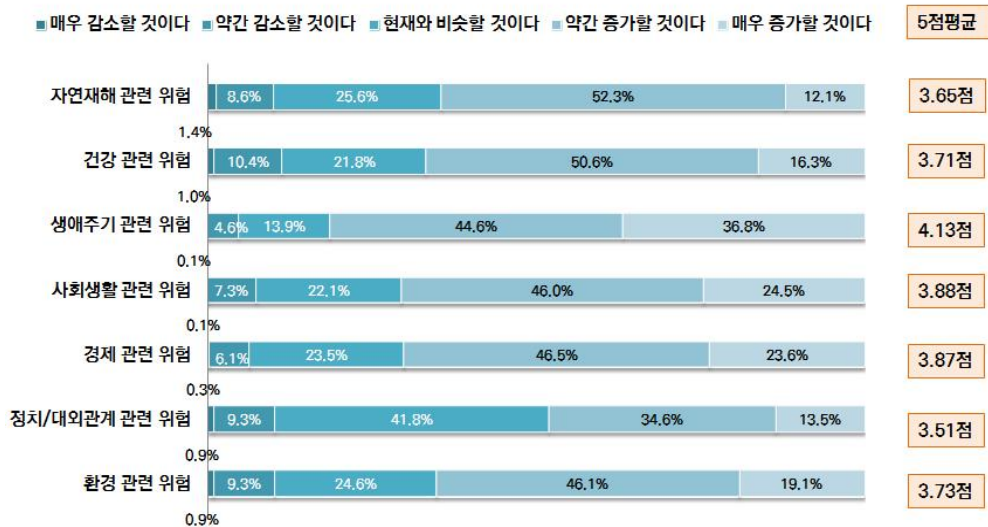


[그림 2] 10년 전 대비 서울시민 위험도 인식

서울시민 81.4% “앞으로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

앞으로 서울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위험요소 7개 각각의 향후 증감 전망에 대해, 대부분의 위험 요소별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생애주기 관련 위험’ 증가 응답률(81.4%)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사회생활 관련 위험’(70.5%)과 ‘경제생활 관련 위험’(70.1%) 순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향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층별 차이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생활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비정규직 근로자(78.4%)나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78.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40대(70.1%)나 주부층(7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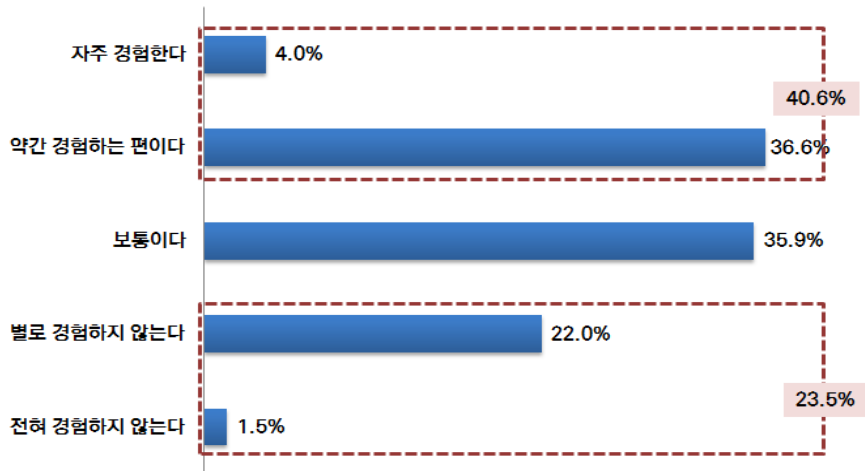
[그림 3] 위험 요소별 향후 증감여부 전망

“일상생활서 불안감 경험” 40.6%, “경험한 적 없다” 23.5%

서울시민들은 평소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안감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험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35.9%, ‘경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경험한다’(약간+자주)라는 응답은 성별로 남성(35.6%)보다는 여성(4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층(45.5%)과 화이트칼라층(45.4%) 등에서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 근로

자(56.8%)에서 ‘경험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경험한다’는 응답(46.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적 변수가 일상적 불안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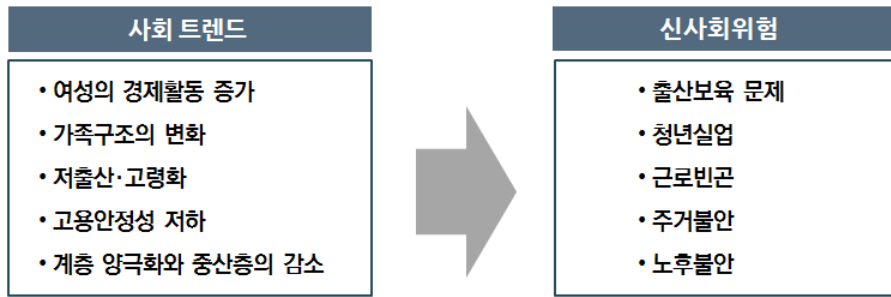


[그림 4] 일상적 불안감 경험 정도

삶의 불안정성은 여성노동자, 청년실업자, 고령자 등에 집중

탈산업화로 인해 팽창한 서비스 산업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를 가져왔고,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와 보육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가족과 여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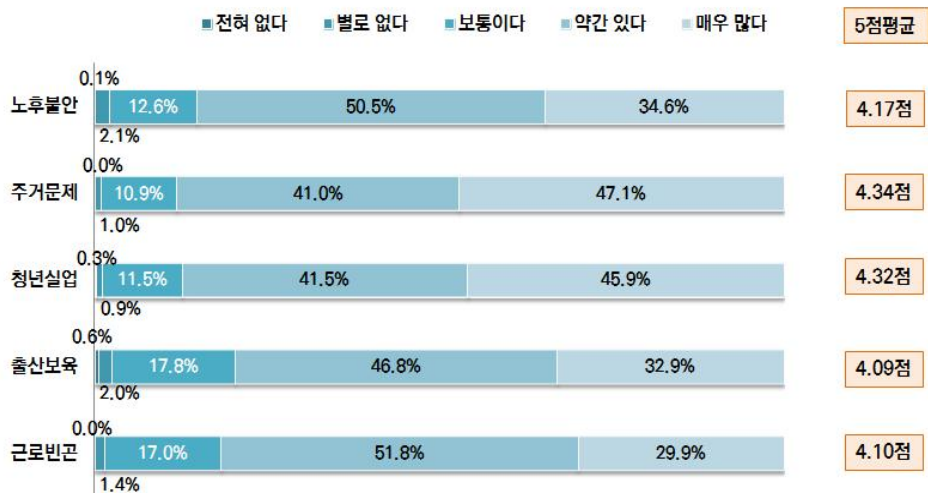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었다. 삶의 불안정성과 빈곤은 특히 여성노동자, 청년실업자, 저소득가정, 고령자 등에게로 집중되어가고 있다.



[그림 5] 주요 사회트렌드와 신사회위험의 등장

신사회위험, 주거문제·청년실업·노후불안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

서울 도시의 새로운 위험으로서 노후불안 등 5가지 신사회위험 요소별로 문제해결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5가지 대부분 '중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다. 시민들은 제시한 위험 요소 모두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주거문제'(88.1%)와 '청년실업'(87.4%), '노후불안'(85.1%) 해결의 중요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신사회위험 요소별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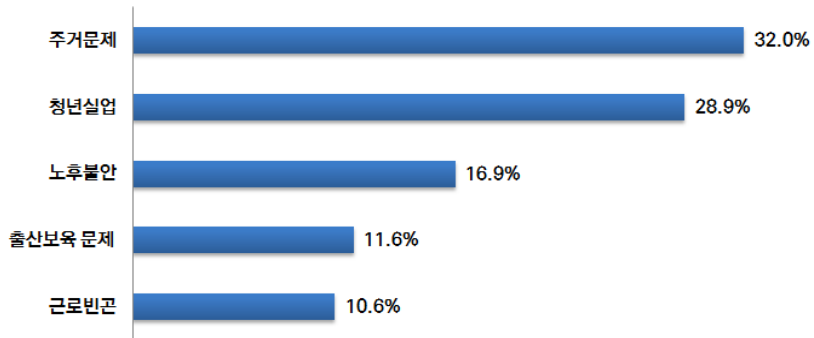
대부분의 요소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은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집값 상승, 전세 대란 등의 ‘주거문제’ 해결 중요도는 전세입주자(9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빈곤, 노인 우울증 등 ‘노후불안’ 중요도는 60대 이상(91.6%)에서, ‘청년실업’ 중요도는 20대(92.6%), ‘출산 보육 문제’는 기혼과 무자녀층(90.7%) 등 이해 당사자 계층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역점대책은 주거문제·청년실업·노후불안·출산보육 순서

5가지 신사회위험 요소 각각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 항목에서 60% 이상의 응답자가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약간+매우)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5개 항목 중 ‘주거문제’(83.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청년실업’(70.5%)이나 ‘노후불안’(70.0%)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보육’(67.9%)이나 ‘근로빈곤’(65.8%)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 가지 신사회위험 요소 중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는 ‘주거문제’(32.0%)와 ‘청년실업’(28.9%)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 외 ‘노후불안’ 문제는 16.9%, ‘출산보육’ 문제는 11.6%, ‘근로빈곤’은 10.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위험요소 중 주거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관심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거문제’를 꼽은 경우는 30대(45.9%), 기혼과 무자녀층(46.3%)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청년실업’은 20대(49.3%), 미혼층(38.9%)에서 특히 더 많았다. ‘노후불안’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20대 6.1% < 40대 13.4% < 60대 이상 33.7%)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그림 기] 최우선 대책이 필요한 신사회위험

구성원 간 대화·협의로 합의 도출해야 사회적 갈등 해소 가능

불안사회를 치유하는 방안은 사회적 신뢰 회복에 있다. 사회적 신뢰 증진을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험에 대한 사회적 소통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이기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사회차원의 위험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공론장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신뢰가 부족한 사회의 배경에는 사회적 연대와 유대감의 약화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람들의 소속감과 귀속감 속에서 돌봄과 돌봐줌, 그 속의 치유가 필요하다. 개인적 접근에서 '힐링'이 유행했다면, 사회적으로는 치유보다는 '보살핌'의 의미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를 들 수 있다. 공동체를 통해 육아, 노후불안 등 기존 제도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사회적 연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상호 간의 이해와 함께하는 연대, 이를 위해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